조계종·동국대, 불교교육학 정립 '첫걸음'

조계종硏 – 동국대 불교교육硏
3월 6일 공동 학술대회 개최
'불교교육학' 정립 방향 제시
2학기부터 대학원 과정 신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교육연구소는 3월 6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불교교육학의 정립 및 미래세대 포교 실천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 기념촬영 모습.

미래세대에게 불교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전문 학문인 '불교교육학'의 정립을 위해 조계종과 동국대가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교육연구소(소장 장환영)는 3월 6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불교교육학의 정립 및 미래세대 포교 실천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 포교의 교육적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종단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가 함께 참여해 학교교육, 청년 전법, 명상 교육, 인공지능 환경 등 현대 사회의 교육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장환영 불교교육연구소장은 '불교교육학 정립과 실천'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교육학 정립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 소장은 교육학이 불교에 접목됐을 경우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불교 미래세대와 사회 리더들을 양성해 불교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음을 자신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불교교육학은 실천성과 현장성을 담보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를 통한 청년세대에 접근이 용이하다"면서 "불교교육학이 이론불교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교육학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중화 △과학화 △국제화 △디지털화를 꼽았다. 체계적 교육과정과 방법 개발을 통해 쉽게 불교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불교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 소장은 구체적인 불교교육학 발전 계획도 제시했다. 총 6년 동안 △탐색기 △성장기 △확립기를 통해 불교교육학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고 전문 학과 및 학회를 설립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게 장 소장의 계획이다.

장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교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정립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더불어 전법과 불교 가치 확산을 위해 불교교육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 불교교육학 협동 과정을 신설할 계획임을 전했다. 신인수 불교교육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동국대 일반대학원 내에 불교교육학과 협동과정이 신설된다. 세부 전공은 불교교육학 전공, 인성 및 마음교육 전공, AI·디지털 인재 개발 전공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님의 침묵', 韓정신사 정점"

윤재웅 총장, '님의 침묵 100주년 학술대회' 기조강연

공동체 정신 회복 통한
화합 구현이 작품 의의


윤재웅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문화학술원 만해연구소와 국어교육콘텐츠연구소는 3월 6~7일 1박 2일 동안 동국대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문화의 새로운 지평: 아카이브와 AI 구축, 세계인 만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국대 건학 120주년과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을 기념해 열려 의미를 더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윤 총장은 "〈님의 침묵〉은 20세기 한국 정신사의 정점"이라고 평가하며 "이 시집에 나타난 자유·평등·평화 사상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님의 침묵〉이 마음속에 중생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함께 있다는 화엄 사상의 '진망화합식'이 일상 국어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윤 총장은 "〈님의 침묵〉에 담긴 사유는 불교의 화엄 사상에 기반한 세계관으로 모든 이별과 만남의 사건들은 화엄의 바다에 일어난 거품에 불과하다는 큰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룻배와 행인'을 상기한 윤 총장은 "고통받는 자, 억압받는 자, 소외된 자를 향한 행동과 실천이 만해 시의 본질"이라며 "만해 스님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촉구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룻배이며 행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종결하고 화합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님의 침묵〉 출간 100주년이 지니는 의의이자 만해 스님의 사상이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잘 분별해야 평등과 연민을 구현한다

㉝ 무분별 선분별(無分別 善分別)

無分別 善分別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는 분별심 내지 말라는 말을 불자들은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 말은 자칫 듣는 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거나 불의 앞에서 침묵하게 만들고, 나아가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용될 수도 있다. 심지어 음험한 속셈을 감춘 채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무분별과 선분별의 개념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분별하지 말라는 무분별(無分別)은 모든 존재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는 공성(空性)의 통찰, 곧 십바라밀 가운데 여섯 번째인 반야바라밀의 영역에 속한다. 반면 사물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선분별(善分別)은 여러 조건이 작용해 발생한 연기적 현상의 특징과 역할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지혜로, 십바라밀의 열 번째인 지혜바라밀의 영역에 속한다. 결국 무분별과 선분별은 우리 앞에 펼쳐진 동일한 현상을 공성과 연기라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통찰하는 데서 성립한다.

예를 들어 극명하게 다른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거짓과 거친 언행 때문에 불신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과 배려의 태도로 신뢰를 얻는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분별이다. 그러나 불신받는 사람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고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무분별이다.

〈화엄경〉 '십지품'에는 "모든 법이 차별 없는 모습임을 알면서도 능히 (지금 여기) 각각의 모습을 잘 분별한다(知一切法 無差別相 而善能分別 一切諸法)"라고 한다. 또 '야마천궁보살설게품'에서는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서로 조금도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고 말한다.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한다. 번뇌와 악습에 따라 마음을 쓰면 중생이 되고, 지혜와 자비로 마음을 완성하면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중생과 부처는 서로 다르면서도 또한 다르지 않다.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차별 속에서 차별 없음을 보고, 차별 없음 속에서 다시 차별을 보아야 한다. 이웃의 어려움이 생긴 원인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방편바라밀이라 한다. 그러므로 무분별을 맥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선분별이 중요하다.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과 연민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화순 불암사 주지〉

동아시아 호국불교 어떻게 형성됐나

동국대불문연 HK+사업단
3월 20일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승가에서 호국불교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3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와 국가: 동아시아 승가와 호국불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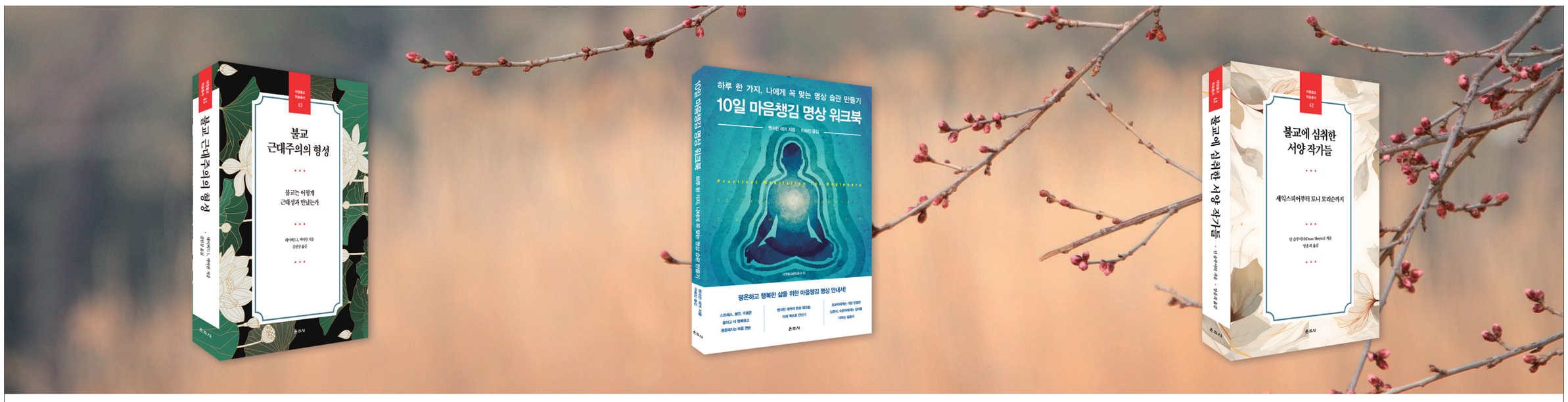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불교의 역사 안에서 나타난 호국관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활동과 불교사적 의의'를, 조나단 칼 포이어 홍콩대 박사 후 연구과정은 '한국 불교 군종 제도: 폭력인가'를, 간 친신 중국 서남교통대 인문대학 교수는 '일제강점기 대만 혁명승 임추오의 한국불교사 인식과 호국불교론'을 각각 발표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은 '무장한 자비: 일본 중세에서 승군지장의 탄생'을, 오가와 히로카즈 일본 오타니대 강사는 '19세기 말 일본불교의 호국관과 조선불교 구제 담론의 형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 19일 오후 4시에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고전 텍스트 강연'이 동국대 만해관 256호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오가와 히로카즈 일본 오타니대 강사가 맡았으며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 불교 문헌(에도~메이지시대)'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현대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힌 역작!
불교 근대주의의 형성
흔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기는 불교의 모습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근대의 서구철학, 과학, 심리학 등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치밀하게 밝혀낸다.
데이비드 L. 맥마한 지음, 김한상 옮김/신국판/524쪽/값 32,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